

가구의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주관적 상환부담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terminants of Subjective Repayment Burden in Household Debt by Income Quintile Groups

박윤태, 노정현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교통학과

Yoon-Tae Park(june4me@naver.com), Jeong-Hyun Rho(jrho@hanyang.ac.kr)

요약

최근 가계부채의 급증과 경제적 변화는 가구의 현금 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높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부실위험이 증가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들은 가계부채에 대한 객관적 상환부담지표를 구성하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요자 인식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가구의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주관적 상환부담요인을 도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소득 1·2분위에서 월세, 신용카드대출, 주거마련 대출비율이 높을수록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3·4분위는 60대 이상, 가구원수, 부동산담보대출이 많을수록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는 부채상환마련 대출비율이 높을수록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가계부채 | 소득분위 | 원리금 | 주관적 상환부담 |

Abstract

Lately, rapid increase of household debt and economic change has affected cash flow of household, insolvent risk has increased by high repayment burden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Previous researches was progressing various discussion, composed objective repayment burden index about household debt. But it was relatively insufficient about perception of consumer. This research compare and analysis determinants of subjective repayment burden in household debt by income quintile, using 2016 Household Financial Welfare Survey. The research result is follows. The income 1 and 2 quartile groups have the higher monthly rent and credit card loan and the housing preparation loan ratio, the higher burden on repayment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The Income 3 and 4 quartile groups have the higher 60s or older and member of household and real estate mortgage loan, the higher burden on repayment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The Income 5 quartile group has the higher loan ratio for debt repayment preparation, the higher burden on repayment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 **keyword** : | Household Debt | Income Quintile Groups | Principal and Interest | Subjective Repayment Burden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3년 이후,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대출심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LTV¹, DTI² 규제를 완화하였다. 최근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6년 1,342조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11.6%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실질 GDP 증가율은 2.8%,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4.0%로 가계부채 증가율과 비교하여 상당히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달리 OECD 국가인 미국, 영국, 독일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1][2].

따라서 경기변동에 따른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경기호황기에는 부채를 활용하여 소비 및 투자를 증가시키고, 일부 수요자들은 향후 높은 기대이익을 고려하여 과도한 부채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였다. 하지만 경기불황기에는 소득 및 자산 감소에 따른 부채상환능력이 불확실해지고, 원리금 상환부담이 심화되어 부실위험가구가 증가하였다. 또한 과다 가계부채는 가구의 현금흐름에 따라 소비를 위축시키고, 높은 이자상환부담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증가하면서 금융기관 부실화를 초래하고,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3][4].

그동안 선행연구들은 거시적 측면에서 총량적 지표에 따른 가계부채 규모 변화와 차주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초점으로 공급자인 금융기관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미시적 측면의 연구는 DSR³, LTI⁴, DTA⁵ 등을 고려하여 가구의 재무건전성 관련 가계부채 상환위험요인에 대해서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거시적 부문의

총량적 변화와 미시적 부문의 상환부담지표를 초점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최근 가계부채 관련 기존 연구는 주요 대출용도인 주택구입, 사업자금, 생활비마련과 관련하여 가구의 주관적 상환부담에 대한 영향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첫째, 가구를 중심으로 소득 5분위 기준을 활용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가계부채 주관적 상환부담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재무건전성의 중요요인인 소득을 중심으로 분석유형을 구분하였다.

둘째, 부채가구의 인적 특성은 선행 연구에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연령, 종사상 지위를 중심으로 세분화하였고, 주택점유형태, 주택규모 등을 추가하였다.

셋째, 대출 특성은 선행연구에서 가계부채 상환부담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DSR과 DTA, 대출유형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대출 여부를 설정하였다.

넷째, 가구의 대출용도별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주거마련, 생활비마련, 사업자금마련, 부채상환마련을 반영하여 주관적 상환부담에 대한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채가구를 대상으로 인적 및 대출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주관적 상환부담요인을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질적 측면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가계부채 상환부담요인에 대한 학술적 기여와 정부의 관리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채가구를 대상으로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통계청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대두되고 있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거시적 및 미시적 측면의 가계부채 상환위험과 채무불이행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변수들을 인적 특성과 대출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1 LTV(Loan to Value)는 은행기관에서 대출심사를 받을 때, 담보물건의 자산 가치 대비 대출금액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의미한다.

2 DTI(Debt to Income)는 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한다.

3 DSR(Debt Service Ratio)은 담보대출 및 기타 대출을 포함한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한다.

4 LTI(Loan to Income)는 유량(flow) 개념인 소득을 활용하여 부채총액에 대한 부담을 나타내는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의미한다.

5 DTA(Debt to Asset)는 지량(stock) 개념인 자산을 활용하여 부채총액에 대한 부담을 나타내는 자산총액 대비 부채비율을 의미한다.

셋째, 부채가구의 소득분위를 구분하여 소득 1·2분위를 저소득층, 소득 3·4분위를 중소득층, 소득 5분위를 고소득층으로 분석유형을 구분하였다.

넷째, 부채가구의 소득분위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χ^2 -test와 F-test를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주관적 상환부담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변수를 세분화하고, χ^2 -test와 t-test를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다섯째, 가구의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주관적 상환부담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종합 비교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가계부채의 개념

한국은행에서 가계부채는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포함하는 가계신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가계대출은 생계 및 부업 등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대출이며, 판매신용은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회사를 통한 신용(외상)거래를 의미하고 있다[5].

따라서 가계부채의 정의에 대해서 3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가계의 대출목적에 따른 정의는 금융기관의 비 영리대출, 비 개인사업에 대한 부업자금대출,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하여 광의의 가계부채로 정의하고 있다[6]. 가계부채의 대출유형에 따른 정의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대출, 외상 및 할부구입, 기타 부채 등을 가계부채로 정의하고 있다[7]. 가계부채의 공급자인 금융기관에 따른 정의는 예금은행, 비 은행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포함하여 가계신용으로 정의하고 있다[8].

2. 선행연구

가계부채 선행연구는 거시적 변수를 활용한 가계부채 증가요인, 경기변동 시나리오를 적용한 가계부채 안정성 평가, 주택담보대출 은행자료를 활용한 가계부채 연체요인에 대해서 3가지 연구내용으로 접근하고 있다.

첫째, 거시경제변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요인에 관

한 연구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계부채 총량, 통화량, 실업률, 대출금리, 주택 및 전세가격지수 등을 활용하여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실업률, 통화량, 주택 및 전세가격지수와 가계부채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LTV와 DTI 규제, 대출금리는 음(-)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9-12].

둘째, 경기변동 시나리오를 적용한 미시적 측면의 가계부채 안정성에 관한 연구는 역사적 및 임의적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가계부채 및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위험확률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GDP, 소득, 주택가격 하락,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수요자 특성별로 가계부채 위험확률 차이를 도출하였다[13-16].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층, 저소득층은 거시적 충격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상환위험확률이 높은 수치로 증가하였다[13][14][16]. 또한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재무 상태는 가구의 평균부도확률의 차이를 도출하였고, 무고용원 자영업자는 가계부채에 따른 평균부도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제시하였다[15]. 주택담보대출 위험 관리의 외부 변화,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및 총량 수준에서 정부 역할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6].

셋째, 미시자료를 활용한 가계부채 연체요인에 대한 연구는 인적 특성에서 연령, 종사상 지위, 소득, 자산과 대출 특성에서 LTV 및 DTI 수준 변화, 원리금 상환방식, 대출기간, 금융기관 유형을 반영하여 연체율 및 연체증가요인을 분석하였다[17-22]. 주요 연구결과는 담보대출비율인 LTV, DTI가 높을수록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의 상승을 제시하였고, LTV 보다 DTI 비율이 더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다[17][20].

상환방식은 체증식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 및 원금균등상환방식 보다 연체 확률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도출하였고, 상환방식에 따른 대출상환의 취약성을 제한하였다[17][18]. 이에 저소득층은 제2금융권 대출이 있을 경우, 소득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재무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체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제시하였다[19].

대출공급자인 금융시장의 위험관리를 중심으로 연체요인을 살펴보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증금리시장 진입에 따른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 및 연체율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자영업자, 다중채무, 실효금리가 높을수

록 가계부채 상환부담 및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21]. 또한 국내 주택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금융시스템 리스크 분산을 위해 설명변수인 연령, 연 소득, 대출유형, 신용등급 등을 반영하여 특성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에 고정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금리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2].

기존 연구는 가계부채 총량 증가, 원리금 상환위험 및 연체에 있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거시경제변수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요인을 제시한 연구들은 대출 수요자의 특성 및 위험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경기변동 시나리오에 따른 가계부채 안정성 평가에 관한 연구는 인적 특성에 따라 위험확률의 차이를 도출하였지만, 세부적인 인적 특성 및 대출 특성을 반영한 영향관계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가계부채 연체 요인에 관한 연구는 차주별 주택담보대출 은행자료를 중심으로 거시적 및 미시적 요인을 고려하여 원리금 연체요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하지만 가구 중심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III. 분석의 틀

1. 분석자료

한국은행·금융감독원·통계청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정부가 가계의 재무건전성과 금융정책 및 연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한 가구 자료이다.

조사방식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모집단을 이용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전문조사원이 직접 찾아가는 면접조사방식을 통해서 구축되었다. 이는 현재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로 일반시민들에게 마이크로(Micro) 자료로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 금융 부문을 활용하여 총 9,176가구 중 금융부채 보유 가구를 추출하고, 이상치를 제외하여 4,991가구를 최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조사가구의 소득을 기초로 통계청에서 제시한 5분위 배율(소득 1분위 : 하위 20%, 소득 5분위 : 상위 20%로 설정)을 활용하여 소득

그룹을 구분하였다.

2. 연구모형 및 변수의 구성

본 연구는 변수의 구성을 [표 1]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연구모형은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소득을 중심으로 분석유형을 구분하였다. 이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소득 1·2분위를 저소득층, 소득 3·4분위를 중소득층, 소득 5분위를 고소득층으로 설정하였다.

변수의 구성은 가계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주관적 상환부담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구성하였다. 인적 특성에서 연령, 종사상 위치, 가구원수, 주택점유형태, 주택 규모, 거주 지역은 전승훈 외(2013), 박범석 외(2014), 이은화(2016), 상민경 외(2016), 최성호 외(2016), 류주연 외(2017), 이동진 외(2017)의 연구에서 유의한 변수로 도출하였다[1][4][7][8][15][16][22].

대출 특성에서 DSR, DTA, 부동산담보, 신용대출, 신용카드대출은 허석균(2012), 김재용(2014), 김진(2014), 조은진(2014), 이동걸 외(2014), 김문년 외(2015), 한국은행(2015), 송준혁(2016)의 연구에서 유의한 변수로 제시하였다[3][5][13][17-21]. 대출 특성에서 주거마련, 생활비마련, 사업자금마련, 부채상환마련 대출비율은 김현정 외(2013), 김상미(2016)의 연구에서 분석 변수로 활용하였다[2][14].

따라서 본 연구의 변수를 살펴보면, 종속변수는 가계부채 주관적 상환부담으로 설정하고,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과 매우 부담으로 구분하였다.

독립변수는 인적 특성과 대출 특성으로 분류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인적 특성에서 연령은 20-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종사상 지위는 상용,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직 및 기타로 설정하였다. 주택점유형태는 자가, 전세, 매 달 임대료를 지출하는 월세 및 기타, 거주 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연속 변수인 가구원수와 주택규모는 전용면적을 활용하였다. 대출 특성에서 DSR, DTA, 주거마련대출, 생활비마련대출, 사업자금마련대출, 부채상환마련대출은 비율 변수로 산출하였다.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대출은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표 1. 변수의 구성

구분	변수		척도	정의	기준 범주	
종속변수	가계부채 주관적 상환부담		명목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0)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0)	
				매우 부담(1)		
독립변수	인적 특성	연령	40대	명목	40대(0)	40대(0)
			20-30대	명목	20-30대(1)	
			50대	명목	50대(1)	
			60대 이상	명목	60대 이상(1)	
		종사상 위치	상용근로자	명목	상용근로자(0)	상용근로자(0)
			일용근로자	명목	일용근로자(1)	
			자영업자	명목	자영업자(1)	
			무직 및 기타	명목	무직 및 기타(1)	
			가구원수	연속	명	-
	주택점유형태	자가	명목	자가(0)	자가(0)	
		전세	명목	전세(1)		
		월세 및 기타	명목	월세 및 기타(1)		
		주택규모	연속	전용면적(m ²)	-	
		거주 지역	명목	수도권(1)	비수도권(0)	
	대출 특성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율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 가처분소득	-
자산총액 대비 부채총액(DTA)		비율	부채총액 / 자산총액	-		
부동산담보대출 여부		명목	있음(1)	없음(0)		
신용대출 여부		명목	있음(1)	없음(0)		
신용카드대출 여부		명목	있음(1)	없음(0)		
주거마련대출		비율	주거마련대출 / 부채총액	-		
생활비마련대출		비율	생활비마련대출 / 부채총액	-		
사업자금마련대출		비율	사업자금마련대출 / 부채총액	-		
부채상환마련대출		비율	부채상환마련대출 / 부채총액	-		

IV. 실증분석

1. 부채가구의 일반적 특성

부채가구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가계부채 주관적 상환부담은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이 80.4%, 매우 부담이 19.6%로 나타났다. 인적 특성에서 연령은 20-30대가 20.0%, 40대가 29.9%, 50대가 28.4%, 60대 이상 21.8%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가 48.1%, 일용근로자가 10.9%, 자영업자가 29.6%, 무직 및 기타가 11.4%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는 평균 3.20명으로 나타났고, 주택점유형태는 자가 65.5%, 전세가 17.6%, 월세 및 기타가 16.9%, 주택규모

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평균 82.06m², 거주 지역은 비수도권이 63.6%, 수도권이 36.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출 특성에서 가처분소득은 평균 4,894만원, 자산총액은 평균 40,994만원, 부채총액은 평균 10,435만원으로 나타났다. DSR과 DTA는 평균 37.84%, 46.50%를 차지하였다. 또한 부동산담보대출은 없음이 46.2%, 있음이 53.8%, 신용대출은 없음이 60.5%, 있음이 39.5%, 신용카드대출은 없음이 90.7%, 있음이 9.3%로 나타났다. 주거마련대출은 평균 37.21%, 생활비마련대출은 평균 11.39%, 사업자금마련대출은 평균 13.01%, 부채상환마련대출은 평균 2.76%로 나타났다.

표 2. 부채가구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
가계부채 주관적 상환부담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4,014	80.4
	매우 부담	977	19.6
연령	20-30대	1,000	20.0
	40대	1,490	29.9
	50대	1,415	28.4
	60대 이상	1,086	21.8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2,402	48.1
	일용근로자	545	10.9
	자영업자	1,477	29.6
	무직 및 기타	567	11.4
가구원수(명)	(3,20)		
주택점유형태	자가	3,268	65.5
	전세	879	17.6
	월세 및 기타	844	16.9
주택규모(㎡)	(82,06)		
거주 지역	비수도권	3,172	63.6
	수도권	1,819	36.4
가처분소득	(4,894)		
자산총액	부채총액	(40,994)	(10,435)
DSR	DTA	(37.84)	(46.50)
부동산담보대출	없음	2,304	46.2
	있음	2,687	53.8
신용대출	없음	3,019	60.5
	있음	1,972	39.5
신용카드대출	없음	4,527	90.7
	있음	464	9.3
주거마련대출	(37,21)		
생활비마련대출	(11,39)		
사업자금마련대출	(13,01)		
부채상환마련대출	(2,76)		
총계		4,991	100.0

2. 부채가구의 소득분위별 특성 분석

부채가구의 소득분위별 특성 분석은 [표 3]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에 각 그룹에 따른 변수 척도에 따라 명목척도는 χ^2 검정, 연속 및 비율척도는 F검정을 활용하여 5%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였다.

가계부채 주관적 상환부담은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이 소득 2·3분위에서 47.0%, 매우 부담은 소득 1·2분위에서 44.3%로 가장 높았다. 인적 특성에서 연령은 60대 이상이 소득 1·2분위에서 53.2%로 가장 높았다. 종사상 지위는 일용근로자가 소득 1·2분위에서 56.7%, 자영업자가 소득 3·4분위에서 48.1%로 가장 높았다. 가구원수는 소득 1·2분위에서 2.39명으로 가장 낮았다. 주택점유형태는 월세가 소득 1·2분위에서 57.9%로 가장 높았다.

대출 특성에서 DSR과 DTA는 소득 1·2분위에서 각각 41.36%, 87.06%로 가장 높았다. 부동산담보대출은 없음이 소득 5분위에서 16.5%, 있음이 30.9%로 가장 큰 격차를 나타냈다. 신용대출은 없음과 있음이 소득 5분위에서 23.7%, 25.2%로 상당히 유사하였다. 신용카드대출은 있음이 소득 1·2분위에서 42.9%, 소득 5분위에서 10.6%로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냈다. 주거마련대출은 소득 3·4분위에서 40.31%, 생활비마련대출은 소득 1·2분위에서 16.28%, 사업자금마련대출은 소득 5분위에서 14.78%로 가장 높았다.

표 3. 부채가구의 소득분위별 특성 분석

변수		소득 1-2분위 (저소득층)	소득 3-4분위 (중소득층)	소득 5분위 (고소득층)	Total (4,991)	χ^2 & F검정통계량	
가계부채 주관적 상환부담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1,033(25.7)	1,887(47.0)	1,094(27.3)	4,014	$\chi^2=170.811^{***}$	
	매우 부담	433(44.3)	428(43.8)	116(11.9)	977		
인적 특성	연령	20-30대	233(23.3)	585(58.5)	182(18.2)	1,000	$\chi^2=470.919^{***}$
		40대	307(20.6)	751(50.4)	432(29.0)	1,490	
		50대	348(24.6)	613(43.3)	454(32.1)	1,415	
		60대	578(53.2)	366(33.7)	142(13.1)	1,086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94(16.4)	1,244(51.8)	764(31.8)	2,402	$\chi^2=827.315^{***}$
		일용근로자	309(56.7)	210(38.5)	26(4.8)	545	
		자영업자	387(26.2)	711(48.1)	379(25.7)	1,477	
무직 및 기타		376(66.3)	150(26.5)	41(7.2)	567		
가구원수		2.39	3.40	3.80	3.20	F=586.615^{***}	
주택점유형태	자가	765(23.4)	1,546(47.3)	957(29.3)	3,268	$\chi^2=386.915^{***}$	
	전세	244(27.8)	448(51.0)	187(21.3)	879		

		월세	375(57.9)	239(36.9)	34(5.2)	648	
		기타	82(41.8)	82(41.8)	32(16.3)	196	
	주택규모		67.00	80.86	102.60	82.06	F=251.247***
거주 지역		비수도권	967(30.5)	1,453(45.8)	752(23.7)	3,172	$\chi^2=6.324^{**}$
		수도권	499(27.4)	862(47.4)	458(25.2)	1,819	
대출 특성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1.36	37.18	34.84	37.84	F=24.419***
	자산총액 대비 부채총액(DTA)		87.06	31.66	25.74	46.50	F=55.966***
	부동산담보대출	없음	880(38.2)	1,043(45.3)	381(16.5)	2,304	$\chi^2=219.385^{***}$
		있음	586(21.8)	1,272(47.3)	829(30.9)	2,687	
	신용대출	없음	935(31.0)	1,385(45.9)	699(23.2)	3,019	$\chi^2=12.810^{***}$
		있음	531(26.9)	930(47.2)	511(25.9)	1,972	
	신용카드대출	없음	1,267(28.0)	2,099(46.4)	1,161(25.6)	4,527	$\chi^2=71.322^{***}$
		있음	199(42.9)	216(46.6)	49(10.6)	464	
	주거마련 대출비율		30.18	40.31	39.79	37.21	F=25.961***
	생활비마련 대출비율		16.28	11.05	06.13	11.39	F=44.011***
	사업자금마련 대출비율		13.49	12.14	14.78	13.01	F=8.452***
부채상환마련 대출비율		03.69	02.96	01.23	02.76	F=9.624***	

p(0.05, *p(0.01

3. 부채가구의 주관적 상황부담 특성 분석

부채가구의 주관적 상황부담 특성 분석은 [표 4]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에 각 그룹에 따른 변수 척도에 따라 명목척도는 χ^2 검정, 연속 및 비율척도는 F검정을 활용하여 5%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였다.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0-30대에서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21.2%) 보다 매우 부담(15.4%)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40대, 50대, 60대 이상은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29.2%, 28.1%, 21.5%) 보다 매우 부담(32.5%, 29.5%, 22.6%)이 더 높았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에서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51.1%) 보다 매우 부담(35.8%)이 더 낮았고, 일용근로자, 무직 및 기타는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9.0%, 18.6%) 보다 매우 부담(18.6%, 28.5%)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이 평균 3.32명, 매우 부담이 평균 3.08명으로 나타났다. 주택집유형태는 자가에서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68.4%) 보다 매우 부담(53.3%)이 더 낮았다. 이와 반대로 월세는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10.2%) 보다 매우 부담(24.6%)이 더 높았다. 주택 규모는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이 84.28㎡, 매우 부담이 72.93㎡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비수도권에서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64.8%) 보다 매우 부담(58.3%)이 더 낮았고, 수도권은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35.2%) 보

다 매우 부담(41.7%)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특성을 살펴보면, DSR은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이 35.16%, 매우 부담이 48.85%, DTA는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이 29.60%, 매우 부담이 115.91%로 상당히 높았다. 부동산담보대출이 없는 경우는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45.6%) 보다 매우 부담(48.4%)이 더 높았다. 부동산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는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54.4%) 보다 매우 부담(51.6%)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이 없는 경우는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63.6%) 보다 매우 부담(47.8%)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는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36.4%) 보다 매우 부담(52.2%)이 더 높았다. 신용카드대출이 없는 경우는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93.5%) 보다 매우 부담(79.0%)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대출이 있는 경우는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6.5%) 보다 매우 부담(21.0%)이 더 높았다. 주거마련 대출비율은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38.16%) 보다 매우 부담(33.31%)이 더 낮았다. 생활비, 사업자금, 부채상환마련 대출비율은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10.19%, 11.94%, 1.94%) 보다 매우 부담(16.33%, 17.38%, 6.11%)이 더 높았다.

표 4. 부채가구의 주관적 상황부담 특성 분석

변수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n=4,014)	매우 부담 (n=977)	χ^2 & t검정통계량	
인적 특성	연령	20-30대	850(21.2)	150(15.4)	$\chi^2=17.210^{***}$
		40대	1,172(29.2)	318(32.5)	
		50대	1,127(28.1)	288(29.5)	
		60대	865(21.5)	221(22.6)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2,052(51.1)	350(35.8)	$\chi^2=139.990^{***}$
		일용근로자	363(9.0)	182(18.6)	
		자영업자	1,199(29.9)	278(28.5)	
		무직 및 기타	400(10.0)	167(17.1)	
	가구원수		3.32	3.08	t=3,017 ^{***}
	주택점유형태	자가	2,747(68.4)	521(53.3)	$\chi^2=153.096^{***}$
전세		703(17.5)	176(18.0)		
월세		408(10.2)	240(24.6)		
기타		156(3.9)	40(4.1)		
주택규모		84.28	72.93	t=7,435 ^{***}	
거주 지역	비수도권	2,602(64.8)	570(58.3)	$\chi^2=14.250^{***}$	
	수도권	1,412(35.2)	407(41.7)		
대출 특성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5.16	48.85	t=-4,016 ^{***}
	자산총액 대비 부채총액(DTA)		29.60	115.91	t=-7,541 ^{***}
	부동산담보대출	없음	1,831(45.6)	473(48.4)	$\chi^2=13.411^{***}$
		있음	2,183(54.4)	504(51.6)	
	신용대출	없음	2,552(63.6)	467(47.8)	$\chi^2=81.846^{***}$
		있음	1,462(36.4)	510(52.2)	
	신용카드대출	없음	3,755(93.5)	772(79.0)	$\chi^2=196.731^{***}$
		있음	259(6.5)	205(21.0)	
	주거마련 대출비율		38.16	33.31	t=3,152 ^{***}
	생활비마련 대출비율		10.19	16.33	t=-5,547 ^{***}
	사업자금마련 대출비율		11.94	17.38	t=-4,540 ^{***}
부채상환마련 대출비율		1.94	6.11	t=-5,748 ^{***}	
Total		4,014(100.0)	977(100.0)		

p<0.05, *p<0.01

4. 가구의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주관적 상황부담 결정요인 분석

소득 1·2분위(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주관적 상황부담 결정요인 분석은 [표 5]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인적 특성에서 연령은 40대를 기준으로 20-30대가 많을수록 매우 부담이 0.584배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일용근로자와 무직 및 기타가 많을수록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이 1.859배, 2.19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는 많을수록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이 1.224배 더 높았다. 주택점유형태는 자가를 기준으로 전세와 월세가 많을수록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이 2.088배, 2.73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규모는 클수록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이 0.676배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비수도권을 기준으로 수도권이 많을수록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이 1.32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특성에서 DSR은 높을수록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부담 없음이 1.12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TA는 높을수록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이 1.14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담보대출은 없음을 기준으로 있음이 많을수록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이 1.987배 더 높았다. 신용대출은 없음을 기준으로 있음이 많을수록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이 1.72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대출은 있음이 많을수록 매우 부담

이 3.55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마련 대출비율은 높을수록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이 1.90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마련 대출비율은 높을수록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이 1.951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금마련 대출비율은 높을수록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이 3.691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상환마련 대출비율은 높을수록 매우 부담이 4.94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소득 1·2분위(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심리적 주관적 상환부담 결정요인 분석

구분	변수	β	Wald	Exp(β)	p-value	
인적 특성	연령	20-30대	-0.538	6,011	0.584	0,014**
		50대	-0.012	0,004	0,988	0,949
		60대 이상	-0.158	0,637	0,854	0,425
	종사상 지위	일용근로자	0.620	10,403	1,859	0,001***
		자영업자	-0.162	0,642	0,851	0,423
		무직 등	0,786	16,232	2,194	0,000***
	가구원수	0,202	11,407	1,224	0,001***	
	점유 형태	전세	0,736	9,762	2,088	0,002***
		월세	1,007	20,587	2,736	0,000***
	주택규모	-0,391	5,472	0,676	0,019**	
	지역	수도권	0,284	4,084	1,329	0,043**
	대출 특성	DSR	0,122	4,205	1,129	0,040**
		DTA	0,137	13,992	1,147	0,000***
부동산담보대출		0,687	11,038	1,987	0,001***	
신용대출		0,544	13,435	1,723	0,000***	
신용카드대출		1,269	46,834	3,557	0,000***	
주거마련대출		0,646	10,379	1,907	0,001***	
생활비마련대출		0,668	8,980	1,951	0,003***	
사업자금마련대출		1,306	29,112	3,691	0,000***	
부채상환마련대출		1,599	19,744	4,946	0,000***	
상수항		-1,946	6,731	0,143	0,009***	
모형 적합	n=1,466, Model $\chi^2=286,635^{***}$, Classification Accuracy=75,8					
	-2Log likelihood=1492,745, Cox & Snell $R^2=0,178$, Nagelkerke $R^2=0,253$					

p<0,05, *p<0,01

소득 3·4분위(중소득층)의 가계부채 심리적 상환부담 결정요인 분석은 [표 6]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인적 특성에서 연령은 40대를 기준으로 60대 이상이 많을수록 매우 부담이 1.22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일용근로자와 무직 및 기타가 많을수록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이 1.613배, 1.6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소득 3·4분위(중소득층)의 가계부채 심리적 주관적 상환부담 결정요인 분석

구분	변수	β	Wald	Exp(β)	p-value	
인적 특성	연령	20-30대	-0.158	0,867	0,854	0,352
		50대	0,196	1,692	1,217	0,193
		60대 이상	0,202	4,190	1,224	0,041**
	종사상 지위	일용근로자	0,478	5,451	1,613	0,020**
		자영업자	0,219	2,081	1,245	0,149
		무직 등	0,485	4,115	1,624	0,043**
	가구원수	0,289	26,586	1,335	0,000***	
	점유 형태	전세	0,311	2,501	1,364	0,114
		월세	0,076	0,112	1,079	0,738
	주택규모	-0,369	4,575	0,692	0,032**	
지역	수도권	0,279	5,092	1,322	0,024**	
대출 특성	DSR	0,079	1,418	1,082	0,234	
	DTA	1,373	45,059	3,948	0,000***	
	부동산담보대출	0,636	13,970	1,890	0,000***	
	신용대출	0,496	14,915	1,641	0,000***	
	신용카드대출	0,941	29,226	2,562	0,000***	
	주거마련대출	0,354	3,971	1,425	0,046**	
	생활비마련대출	0,764	10,077	2,146	0,002***	
	사업자금마련대출	0,666	7,742	1,946	0,005***	
부채상환마련대출	1,102	9,786	3,009	0,002***		
상수항	-2,897	13,334	0,055	0,000***		
모형 적합	n=2,315, Model $\chi^2=318,576^{***}$, Classification Accuracy=81,5					
	-2Log likelihood=1897,874, Cox & Snell $R^2=0,129$, Nagelkerke $R^2=0,209$					

p<0,05, *p<0,01

가구원수는 많을수록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이 1.335배 더 높았다. 주택규모는 클수록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이 0.692배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비수도권을 기준으로 수도권이 많을수록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이 1.32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특성에서 DTA는 높을수록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이 3.948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담보대출은 없음을 기준으로 있음이 많을수록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이 1.890배 더 높았다. 신용대출은 없음을 기준으로 있음이 많을수록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이 1.641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대출은 있음이 많을수록 매우 부담이 2.56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마련 대출비율은 높을수록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이 1.42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마련 대출비율은 높을수록 부담 없음 및 약간 부

담 보다 매우 부담이 2.14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금마련 대출비율은 높을수록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이 1.94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상환마련 대출비율은 높을수록 매우 부담이 3.00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고소득층)의 가계부채 주관적 상환부담 결정요인 분석은 [표 7]에서 정리하였다.

인적 특성에서 거주 지역은 비수도권을 기준으로 수도권에 많을수록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이 1.481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소득 5분위(고소득층)의 가계부채 심리적 주관적 상환부담 결정요인 분석

구분	변수	β	Wald	Exp(β)	p-value	
인적 특성	연령	20-30대	-0.143	0.181	0.867	0.671
		50대	-0.117	0.215	0.890	0.643
		60대 이상	-0.220	0.315	0.803	0.575
	종사상 지위	일용근로자	0.403	0.366	1.496	0.545
		자영업자	0.011	0.002	1.011	0.966
		무직 등	0.511	0.800	1.668	0.371
	가구원수	-0.122	1.318	0.885	0.251	
	점유 형태	전세	0.416	1.429	1.516	0.232
		월세	-0.442	0.669	0.643	0.413
	주택규모	-0.018	0.004	0.982	0.952	
지역	수도권	0.393	3.934	1.481	0.047**	
대출 특성	DSR	0.293	4.441	1.340	0.035**	
	DTA	1.592	12.892	4.913	0.000***	
	부동산담보대출	0.572	3.205	1.772	0.073	
	신용대출	0.532	5.668	1.703	0.017**	
	신용카드대출	1.133	7.813	3.105	0.005***	
	주거마련대출	0.670	4.120	1.954	0.042**	
	생활비마련대출	1.538	8.193	4.656	0.004***	
	사업자금마련대출	1.219	9.171	3.385	0.002***	
	부채상환마련대출	3.120	18.602	22.649	0.000***	
상수항	-3.877	7.497	0.021	0.006***		
모형 적합	n=1,210, Model $\chi^2=93.362$ ***, Classification Accuracy=90.6					
	-2Log likelihood=671.134, Cox & Snell $R^2=0.074$, Nagelkerke $R^2=0.159$					

p<0.05, *p<0.01

대출 특성에서 DSR은 높을수록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이 1.340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TA는 높을수록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이 4.91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은 없음을 기준으로 있음이 많을수록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이 1.703배 높았다. 신용카드대

출은 있음이 많을수록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이 3.105배 더 높았다. 주거마련, 생활비마련, 사업자금마련, 부채상환마련 대출비율은 높을수록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이 1.954배, 4.656배, 3.385배, 22.64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종합비교

본 연구는 가구의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주관적 상환 부담요인에 대한 종합결과를 [표 8]에서 정리하였다.

먼저 인적 특성에서 연령은 40대를 기준으로 타 연령층과 비교해보면, 소득 1·2분위에서 20-30대가 많을수록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에 결정될 확률이 0.584배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3·4분위는 40대 보다 60대 이상이 많을수록 매우 부담에 결정될 확률이 1.224배 더 높았고, 소득 5분위는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일용근로자와 무직 및 기타가 많을수록 소득 1·2분위에서 매우 부담에 결정될 확률이 1.859배, 2.19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3·4분위는 일용근로자와 무직 및 기타가 많을수록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에 결정될 확률이 1.613배, 1.624배 높았고, 소득 5분위는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가구원수는 많을수록 소득 1·2분위에서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에 결정될 확률이 1.224배 높았고, 소득 3·4분위에서 매우 부담에 결정될 확률이 1.3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는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주택점유형태는 자가를 기준으로 소득 1·2분위에서 전세와 월세가 많을수록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에 결정될 확률이 2.088배, 2.736배 높았다. 하지만 소득 3·4분위와 소득 5분위는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주택규모는 넓을수록 소득 1·2분위에서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에 결정될 확률이 0.676배 낮았다. 소득 3·4분위는 매우 부담에 결정될 확률이 0.692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는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표 8. 분석결과 종합비교

구분	변수		소득 1·2분위(저소득층)			소득 3·4분위(중소득층)			소득 5분위(고소득층)		
			n=1,466			n=2,315			n=1,210		
			β	Wald	Exp(β)	β	Wald	Exp(β)	β	Wald	Exp(β)
인적 특성	연령	20~30대	-0.538	6.011**	0.584	-0.158	0.867	0.854	-0.143	0.181	0.867
		50대	-0.012	0.004	0.988	0.196	1.692	1.217	-0.117	0.215	0.890
		60대 이상	-0.158	0.637	0.854	0.202	4.190**	1.224	-0.220	0.315	0.803
	종사상 지위	일용근로자	0.620	10.403***	1.859	0.478	5.451**	1.613	0.403	0.366	1.496
		자영업자	-0.162	0.642	0.851	0.219	2.081	1.245	0.011	0.002	1.011
		무직 등	0.786	16.232***	2.194	0.485	4.115**	1.624	0.511	0.800	1.668
		가구원수	0.202	11.407***	1.224	0.289	26.586***	1.335	-0.122	1.318	0.885
	점유 형태	전세	0.736	9.762***	2.088	0.311	2.501	1.364	0.416	1.429	1.516
		월세	1.007	20.587***	2.736	0.076	0.112	1.079	-0.442	0.669	0.643
		주택규모	-0.391	5.472**	0.676	-0.369	4.575**	0.692	-0.018	0.004	0.982
	지역										
	수도권	0.284	4.084**	1.329	0.279	5.092**	1.322	0.393	3.934**	1.481	
대출 특성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0.122	4.205**	1.129	0.079	1.418	1.082	0.293	4.441**	1.340
	DTA(자산총액 대비 부채총액)		0.137	13.992***	1.147	1.373	45.059***	3.948	1.592	12.892***	4.913
	부동산담보대출 여부		0.687	11.038***	1.987	0.636	13.970***	1.890	0.572	3.205	1.772
	신용대출 여부		0.544	13.435***	1.723	0.496	14.915***	1.641	0.532	5.668**	1.703
	신용카드대출 여부		1.269	46.834***	3.557	0.941	29.226***	2.562	1.133	7.813***	3.105
	주거마련 대출비율		0.646	10.379***	1.907	0.354	3.971**	1.425	0.670	4.120**	1.954
	생활비마련 대출비율		0.668	8.980***	1.951	0.764	10.077***	2.146	1.538	8.193***	4.656
	사업자금마련 대출비율		1.306	29.112***	3.691	0.666	7.742***	1.946	1.219	9.171***	3.385
	부채상환마련 대출비율		1.599	19.744***	4.946	1.102	9.786***	3.009	3.120	18.602***	22.649
	상수항	-1.946	6.731***	0.143	-2.897	13.334***	0.055	-3.877	7.497***	0.021	
모형의 적합성			Classification Accuracy=75.8			Classification Accuracy=81.5			Classification Accuracy=90.6		
			Model $\chi^2=286.635$ ***			Model $\chi^2=318.576$ ***			Model $\chi^2=93.362$ ***		
			-2Log likelihood=1492.745			-2Log likelihood=1897.874			-2Log likelihood=671.134		
			Cox & Snell $R^2=0.178$			Cox & Snell $R^2=0.129$			Cox & Snell $R^2=0.074$		
			Nagelkerke $R^2=0.253$			Nagelkerke $R^2=0.209$			Nagelkerke $R^2=0.159$		

p(0.05, *p(0.01

거주 지역은 비수도권을 기준으로 소득 1·2분위에서 수도권이 많을수록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에 결정될 확률이 1.329배 더 높았고, 소득 3·4분위는 매우 부담에 결정될 확률이 1.322배, 소득 5분위는 매우 부담에 결정될 확률이 1.48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특성에서 DSR과 DTA는 높을수록 소득 1·2분위에서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에 결정될 확률이 1.129배, 1.14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3·4분위는 DTA가 높을수록 매우 부담에 결정될 확률이 3.948배 높았고, DSR은 유의한 결과는 도출하지 못했다. 소득 5분위는 DSR이 1.340배, DTA가 4.913배 매우 부담에 결정될 확률이 높았다.

부동산담보대출은 없음 보다 있음이 많을수록 소득 1·2분위에서 매우 부담에 결정될 확률이 1.98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3·4분위는 없음 보다 있음이

많을수록 매우 부담에 결정될 확률이 1.890배 높았다. 소득 5분위는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신용대출은 없음을 기준으로 있음이 많을수록 소득 1·2분위에서 매우부담에 결정될 확률이 1.723배 높았다. 소득 3·4분위는 1.641배, 소득 5분위는 매우 부담에 결정될 확률이 1.70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대출은 없음을 기준으로 있음이 많을수록 소득 1·2분위에서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에 결정될 확률이 3.557배 높았다. 소득 3·4분위는 2.562배, 소득 5분위는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에 결정될 확률이 3.105배 높았다.

주거마련 대출비율은 높을수록 소득 1·2분위에서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에 결정될 확률이 1.907배 높았다. 소득 3·4분위는 1.425배, 소득 5분위는 매우 부담에 결정될 확률이 1.954배 높았다.

생활비마련 대출비율은 높을수록 소득 1·2분위에서

매우 부담에 결정될 확률이 1.95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3·4분위는 2.146배, 소득 5분위는 매우 부담에 결정될 확률이 4.656배 높았다.

사업자금마련 대출비율은 높을수록 소득 1·2분위에서 부담 없음 및 약간 부담 보다 매우 부담에 결정될 확률이 3.691배 높았다. 소득 3·4분위는 1.946배, 소득 5분위는 매우 부담에 결정될 확률이 3.385배 높았다.

부채상환마련 대출비율은 높을수록 소득 1·2분위에서 매우 부담에 결정될 확률이 4.946배 높았다. 소득 3·4분위는 3.009배, 소득 5분위는 매우 부담에 결정될 확률이 22.64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통계청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주관적 상환부담요인을 도출하고, 주요 연구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경기악화가 발생할 경우, 인적 특성에서 노년층이 다른 계층과 비교하여 연체 및 부실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소득 3·4분위에서 40대를 기준으로 60대 이상이 주관적 상환위험이 높은 것으로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60대 이상이 경제적 은퇴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한 상환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종사상 지위는 임금 근로자와 비교하여 자영업자가 가계부채 상환부담 및 연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도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종사상 지위를 세분화하여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일용근로자와 무직 및 기타가 많을수록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높은 것으로 도출하였다. 이는 한시적 노동형태인 일용근로자와 무직 및 기타 계층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 특성에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DSR과 DTA가 높을수록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높은 것으로 제시하였고, 대출유형에 따라 원리금 상환부담의 차이를 검증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소득분위별로 DSR과 DTA가 높을수록 가계부채 주관적 상환부담이 높은 것으로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대출로 대출유형을 구분하여 가계부채 상환부담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1·2분위(저소득층)는 연령계층인 20-30대 보다 40대가 많을수록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더 높았다. 이는 대출 수요가 많은 40대가 생활비 및 자녀 교육으로 지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점유형태는 자가 보다 월세가 많을수록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더 높았다. 이는 매달 지출하는 월세로 인하여 가구의 재무 안정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신용카드대출과 사업자금마련 대출비율은 높을수록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더 높았다. 이는 다른 대출유형과 비교하여 고금리와 사업성과에 따른 상환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소득 3·4분위(중소득층)는 연령계층인 40대 보다 60대 이상이 높을수록, 가구원수 및 생활비마련 대출비율이 높을수록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높았다. 부동산담보대출은 있음이 많을수록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3·4분위가 부채를 활용하여 향후 기대이익을 위해 투자를 하고 있지만,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득 3·4분위의 현금유동성을 낮추기 때문에 상환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소득 5분위(고소득층)는 DSR, DTA, 부채상환마련 대출비율이 높을수록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높았다. 이는 소득 5분위의 부채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소비 금액과 원리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해야하는 고소득층의 재무적 상황은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점점 가중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소득 1·2분위(저소득층)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 주거 및 생계 측면에서 금융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부채상환에 대

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

둘째, 소득 3·4분위(중소득층)는 주택시장의 안정과 소득계층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엄격한 대출 심사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기존과 차별화된 원리금 상환방식이 필요하다.

셋째, 소득 5분위(고소득층)는 가계부채 총량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매우 높기 때문에 원리금 연체 및 가계 부실이 이루어질 경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안정적인 가계부채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절한 통화정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맞춤형 금융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가구의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상환부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확인하고,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인적 특성과 대출 특성을 구분하여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의 한계는 분석대상이 횡단면 자료이기 때문에 거시경제지표 및 가구의 시간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소득계층별로 통계적 기준을 근거로 비교한 것은 해석상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거시 및 미시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계부채 상환부담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구축하고, 주관적 상환부담과의 상호 비교를 통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이동진, 한진현, *종합적 상환여건을 반영한 과다 부채 가계의 리스크 요인 분석*, BOK 경제연구, 제2017-12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17.

[2] 김현정, 손종철, 이동렬, 임현준, 나승호,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 및 지속가능성 분석*, BOK 경제리뷰, 제2013-5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13.

[3] 김재용, *주택자산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4] 이은화, *가계부채변동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5]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금융안정보고서*, 제25호,

한국은행, 2015.

[6] 김건우, 이창선, *가계부실지수로 본 가계부채*, LG 경제연구원, 2012.

[7] 전승훈, 임병인, “가구의 금융부채 보유 유형별 부채상환능력 분석,” 한국경제연구, 제31권, 제1호, pp.97-124, 2013.

[8] 박범석, 김형주, “도시가계 부채 부실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거주 가계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제27권, 제3호, pp.33-59, 2014.

[9] 심종원, 정의철, 정현경, “주택담보대출 연체를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제15집, 제2호, pp.81-96, 2009.

[10] 김우석, 임인섭, 오현탁, “거시경제변수와 가계부채의 동태적 관계 분석,” 한국산업경제저널, 제5권, 제2호, pp.65-82, 2013.

[11] 김은재, 김종진, “주택시장의 변화가 주택담보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제13권, 제4호, pp.379-391, 2015.

[12] 최경원, *거시경제변수들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금융기관 신용대출잔액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13] 김진, “서울시 주택담보대출의 신용위험 스트레스 테스트,” 주거환경, 제12권, 제3호, pp.311-326, 2014.

[14] 김상미, *한국 가계부채의 부실위험 결정요인*,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15] 상민경, 진창하,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보유가구의 위험평가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24권, 제2호, pp.101-127, 2016.

[16] 최성호, 지규현, “거시변화 및 차주 특성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위험 예측모형,” 주택연구, 제24권, 제2호, pp.177-194, 2016.

[17] 허석균, “DTI, LTV 및 대출상환 조건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 규제연구, 제21권, 제2호, pp.39-77, 2012.

[18] 조은진, *주택담보대출 연체 결정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9] 이동걸, 전성인, 정재욱, 변동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연체결정요인 및 취약성 연구,” 금융연구,

제28권, 제2호, pp.137-178, 2014.

[20] 김문년, 이용만, “주택담보대출에서 연체 및 채무불이행의 발생시기별 위험률 : DTI와 LTV 비율의 교차효과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제87권, pp.17-32, 2015.

[21] 송준혁, “중금리 시장의 도입이 가계의 상환부담 및 연체율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 제34권, 제4호, pp.121-152, 2016.

[22] 류주연, 전진규, “가계대출상품 선택과 연체율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대한경영학회지, 제30권, 제3호, pp.363-390, 2017.

저 자 소 개

박 윤 태(Yoon-Tae Park)

정회원



- 2017년 2월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박사 수료)

<관심분야> : 주택금융 및 정책, 주거복지, 도시재생

노 정 현(Jeong-Hyun Rho)

정회원



- 1976년 2월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공학사)
- 1984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산업공학 석사)
- 1988년 5월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1989년 3월 ~ 현재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 도시계획, 교통계획, 교통공학, 지역개발